

대풍년의 해

작성일: 2011. 2. 28. (월) 새벽 3:00~4:20

작성자: 주사랑빛 (대구)

[주일말씀을 행하고자 저의 죄를 낱알이 회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해요.
저는 죄인 중의 죄인이라 선생님 계신 곳에
바로 제가 있어야 하는데, 선생님께서 저의 죄 대신
하여

그곳에 계시니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의 육신으로 선생님 가까이 갈 수 없지만,
사랑하기에 영으로 꼭 선생님 곁에 가고 싶어요.”
이때 들린 마음의 음성입니다.]

* 예수님 말씀 *

그래, 내 사랑.

육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 가까이 있으면
너는 선생 곁에 있는 것과 같다.

나와 너도 영으로 만나 사랑 나누지 않느냐.

네가 나 부르면 당장 네 곁에서 날 느끼게 해주지
않느냐.

선생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영적인 사랑이자 진정한 사랑이며
영원의 사랑이지.

그날이 되면 나와 늘 일체되고

선생과 영으로 딱 붙어 산 나의 신부 데려갈 것이
다.

(“곁에 있어야 주님 마음 제일 잘 아니
늘 곁에 있게 해 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인류를 위해 기도드려요.

많은 자들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곁에 계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대 중심자를 맞지 못해 사망길로 가고 있으니
꼭 구원길로 인도해 주세요.

영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인류를 위해 더욱 기도하자.

새벽을 깨워 더욱 기도하여라.

오늘 새벽도 지구 마을에

선악과 따먹고 타락길 가는 자들 많다.

루시퍼의 계약에 모두 넘어가고 있다.

나 예수 가슴에 어느새 피눈물이 흐른다.

새벽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다.

누구와 사랑을 나눌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인생
들이다.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삼위와의 사랑에 빠진 자들도 있고

사탄과의 사랑에 빠진 자들도 있구나.

나 예수는 새벽이슬 맞으며 사랑으로 취할 자 찾
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사랑의 문은 굳게 닫혀

사탄의 유혹이 사랑인 줄 알고 빠져 있구나.

나 예수가 인류 각자의 문을 두드릴 날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섭리 나의 신부들은 나와 같이 인류의 문을 두드리
내 사랑 취하게 하자.

그러나 정작 너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안 된다.

사탄은 육신 쓰고 유혹하고

더욱 악랄하게 영으로도 유혹한다.

새벽 기도 시

새벽잠에 빠지게 하고

잡생각의 세계에 빠지게 하고

나와 대화하지 않고 혼자만의 기도 세계에 빠지게
하고

헛 계시에 빠지게 한다.

모두 온전히 나를 사랑하지 않은 탓이요

선생 통해 주는 해법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탓이다.

그러니 더욱 근신하여

늘 오는 새벽이라 생각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여라.

사탄 계시 받아 선생 위한다 하며 너희 영혼을 팔
지 말아라.

온전하게 새벽을 깨워 나를 완벽히 맞아라.

아니면 자기 생각의 세계에 갇혀

나 예수를 가장한 사탄이 두드리는 노크소리 듣고
문 열어주게 된다.

(“무엇으로 주님을 정확히 분별하여 맞이할 수 있
나요?”)

말씀으로 나인지 확인하고 분별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어라.

말씀은 이와 같이 나 예수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하고
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한다.
또한 내가 네 곁에 더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며
일체 되게 한다.
사탄이 틈탈 수 없는 강력한 방어벽이 된다.
말씀에 너희의 정신이 굳게 서야 한다.

섭리사 나의 신부들,
다시 한 번 강조하니 말씀을 완벽히 인지하고
마음에 새기고 알고 깨달아 행하여라!

이 기본적인 과정 지나면
말씀의 씨를 온 사방에 뿌려라.
삼위께서 물과 퇴비 정성껏 하실 것이니 모두 맡겨라.
너희는 씨를 깊이 받아들이는 인류 각자의 밭에 나아가
곡식을 거두는 추수꾼이 되어라.

물과 성령으로 잘 익은 곡식을 거두어라.
새벽기도로 거두고 복음을 전함으로 거두라.
나의 사랑을 대신 전함으로 거두라.
어서 다 거두어 내야
뒤에 남은 쪽정이는 불살라 버리고 새 땅이 된다.
새 땅이 되면 또 농사지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으냐.
곧 불사를 때가 온다.
바람에 씨가 날려 온 대지에 뿌려지듯이
삼위의 성령의 바람에 너희의 기도와 복음의 씨를 날려
온 인류의 마음 밭에 뿌리자.

곡식 모두 거두어 내면 그 땅 불살라 태워 버리니
어서 서둘러라.
때 놓치면 추수꾼이라 자칭하는 야수들 와서
사정없이 곡식 다 먹어버리니 서둘러라.
지금이 때이다.
나 예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재림의 그날까지.

너희 모두 포기하지 말고 나와 함께 온 대지를 누비며
씨를 뿌리고 길러 거두자.

선생이 목숨 걸고 하고 있으니
어서 가서 한 손이라도 거들어라.
나와 함께 모으고 헤치는 자만이 나의 신부 된다.

비유컨대 남편이 밭에서 일하는데
아내는 따뜻한 방에서 잠만 자니
어찌 일체라 할 수 있느냐.
남편이 벌어들인 돈만 펴펴 쓰고
함께 모으고 헤치지 않으면 결국 쫓겨나지 않겠느냐.
삼위의 은혜만 받으려 하지 말고 행하여라.
내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말고
나와 함께 땀 흘리며 농사지으며 추수하자.
그래야 마지막 날, 너희의 수고의 대가를 줄 수 있다.
이는 샅꾼과 같은 대가가 아니다.
샅꾼은 일의 대가만 주고 나면 그만이지.
영원히 나와 함께 살지 못한다.

그러나 나와 함께 모으고 헤친 나의 신부는
따뜻한 안방에서 나와 그동안 쌓인 일의 피로를 풀며
대화하며 영원히 사랑을 나눈다.
때 지나 거두지 못할 때가 오며
나와 함께 일하지 못할 때 오니
어서 서둘러라.
부지런히 선생 따라 나에게 오라.
나와 함께 일하자.
땀도 서로 닦아 주고 참도 먹여 주며
서로 힘주며 함께 일하자.
함께 이룬 결실에 흐뭇해하며
기뻐 얼싸 안을 날 기대한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선생 통해 내가 한 말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더냐.
모두 이루어졌기에 그의 말엔 힘이 있는 것이다.
나 예수는 때에 대해 분명히 선생 통해 말하였다.
눈앞에 곧 이루어진다.

어서 씨 뿌리자.
삼위께서 물과 퇴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빼앗긴 나의 새벽시간을 찾아다오.
널리 알려 깨닫게 하여 이 새벽시간 제대로
나와 만날 수 있는 인류 되도록 해 다오.

선생과 벌써 평생을 함께 땀 흘리며 인농사 지어
왔다.
이제 너희 각자와도 함께하길 원한다.
세상 밭은 너무 넓고도 넓어서
나의 신부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야 얼른 씨 뿌리고 농사지어 결실 거두지.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서 같은 방향으로 밭을 갈자.
선생이 밭을 가는 방향대로 하여라.
선생은 평생 나와 함께했기에
내가 원하는 방향을 가장 잘 안다.
벼를 심을 때에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같은 방향, 같은 속도, 같은 동작으로
우리가 함께 심지 않더냐?

이와 같이 선생 구령 맞추어 밭을 갈고 씨 뿌리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생명 결실의 대 역사 기대한다.
섭리사 대 풍년의 해가 될 것이다.
나와 함께할 때 대 풍년이다.
선생 따라 할 때 대 풍년이다.
다른 자의 방법대로 따라하지 말아라.
쉬워 보여도 결국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하고 결실이
없다.
오직 선생 방법대로 하여라.
이는 곧 나의 방법이다.
그리할 때 결실 맺어 섭리 공간이 터지도록
생명 차고 넘치게 된다.
어서 비축하여 흉년 대비하자.
극심한 시대 심판의 흉년이 다가온다.
나와 함께 흉년 대비한 집은 내내 잔치가 열릴 것
이다.
그러나 대비하지 못하고 아직도 농사짓는
저 기성과 이방은 흉년 맞아 살기 힘들어
썩썩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인류의 많은 자들 어서 생명 공간에 들어올 수 있
도록
널리 전하자.
흉년 맞는 자가 한 명도 없기를 소원한다.

나 예수는 섭리 마을에서만 대작을 이루니

다른 마을에는 열썬도 하지 마라.
다른 마을에서 쉽게 농사짓고
돈 벌게 해 주겠다고 유혹해도 가지 말아라.
나 예수와 함께해야 쉽게 창대하게 이루어진다.
선생 통해 농사지어야 풍년이라고 정녕 말하니
새겨듣고 행하여라.

모두 나의 깊은 말을 성령의 귀로 깨닫기를 축원한
다.
사랑하니 함께하노라.
사랑해.
여호와와 섭리에서 역사하는 주니라.